<h1>나 혼자만 레벨업-21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pc10459cfa4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1화</p>  
<p>'표피가 제법 단단해 보이는데... 단검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?'</p>  
<p>단검은 이전에 쓰던 강철검보다 리치가 짧았다.</p>  
<p>깊은 상처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.</p>  
<p>이편이 데미지를 주기 더 쉬울 듯했다.</p>  
<p>"끄룩."</p>  
<p>드디어 거미가 진우 앞에 멈춰 섰다.</p>  
<p>그러고는 맨 앞 다리 두 개를 들어 올려 기역 자로 세웠다.</p>  
<p>'뭘 하려는 거지?'</p>  
<p>의문도 잠시.</p>  
<p>진우의 눈이 번뜩였다.</p>  
<p>쾅!</p>  
<p>본능적으로 몸을 틀지 않았다면 거미 다리가 가슴을 꿰뚫었으리라.</p>  
<p>뒤편의 바닥을 찔렀던 거미 다리의 관절이 접히며 다시 위로 올라갔다.</p>  
<p>후두둑.</p>  
<p>다리 끝에서 돌가루가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진우가 힐끔 뒤를 살폈다.</p>  
<p>돌로 된 바닥에 휑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.</p>  
<p>'맞으면 아프다 정도로는 안 끝나겠네.'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예리해졌다.</p>  
<p>집중이 필요한 때였다.</p>  
<p>'온다!'</p>  
<p>쉬익-!</p>  
<p>방금 총탄 같이 내리꽂혔던 거미의 다리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좌.</p>  
<p>거미의 좌측 다리를 머리를 숙여 피했다.</p>  
<p>우.</p>  
<p>몸을 측면으로 비틀어 거미의 우측 다리를 흘리고 한 걸음 전진했다.</p>  
<p>우.</p>  
<p>또다시 머리를 노리는 거미의 다리를 피해 두 걸음 더 다가섰다.</p>  
<p>좌. 우. 우. 좌. 우. 우. 우. 좌. 좌.</p>  
<p>쾅! 쾅! 쾅! 쾅! 쾅! 쾅! 쾅! 쾅! 쾅!</p>  
<p>거미의 다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럽게 바닥을 뚫어 댔다.</p>  
<p>진우는 쏟아지는 거미의 공격을 하나씩 피해 내며 거리를 좁혀 갔다.</p>  
<p>유진호는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.</p>  
<p>"뭐, 뭐하는 인간이야?"</p>  
<p>멀리서 보고만 있어도 뒷머리가 곤두설 정도로 살벌해 보이는 공격이었다.</p>  
<p>그런데 그걸 마수의 바로 앞에서 전부 피해 가며 거리를 줄여 나가다니.</p>  
<p>낭비 없는 침착한 움직임에 소름까지 돋았다.</p>  
<p>"저게 E급 헌터라고?"</p>  
<p>아니, 그럴 리가.</p>  
<p>저기 서 있는 게 성진우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면 벌써 온몸이 걸레처럼 찢겨 나갔을 거다.</p>  
<p>한두 번도 제대로 피할 자신이 없었다.</p>  
<p>그런데 진우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두 피해 내고 있었다.</p>  
<p>D급 헌터인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E급이?</p>  
<p>그렇다면 결론은 하나.</p>  
<p>'...부정 등록자!'</p>  
<p>유진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.</p>  
<p>재능이 뛰어난 헌터 중에는 마력을 자유로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다.</p>  
<p>마음만 먹으면 등급을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.</p>  
<p>마력의 일부를 숨겨서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헌터들.</p>  
<p>그런 이들을 '부정 등록자'라 불렀다.</p>  
<p>그리고 대부분의 부정 등록자들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.</p>  
<p>'낮은 랭크의 던전에서 하급 헌터들을 학살하는 취미를 가진 살인마라던가...'</p>  
<p>던전에서 일어난 일은 당사자들 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.</p>  
<p>유진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갑자기 거미보다 진우가 더 무서워졌다.</p>  
<p>'내가 이런 델 왜 온다고 해 가지고...'</p>  
<p>문득 울고 싶어지는 유진호였다.</p>  
<p>쉭! 쉭! 쉭!</p>  
<p>그동안에도 거미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쏟아졌다.</p>  
<p>진우는 공격을 모두 피해 내며 승리를 자신했다.</p>  
<p>조금씩 거리를 줄여 나가다 보니 벌써 거미의 머리가 간격 안에 들어온 것이다.</p>  
<p>거미의 패턴이 단조로워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.</p>  
<p>'일단은 눈이다.'</p>  
<p>약점을 노리는 건 레이드의 기본.</p>  
<p>가장 약해 보이는 눈부터 시작하기로 했다.</p>  
<p>'이제 저 눈에다 검을 박아 넣기만 하면!'</p>  
<p>진우가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였다.</p>  
<p>순간 거미의 공격이 느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쉭! 쉭!</p>  
<p>빠른 공격에 눈이 적응해서 그런가?</p>  
<p>쾅! 쾅!</p>  
<p>아니, 아니다.</p>  
<p>눈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귀는 속일 수 없다.</p>  
<p>바닥을 찍어 대던 요란한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한 박자씩 느려져 있었다.</p>  
<p>청력 하나는 탁월하다고 자신하던 진우였다.</p>  
<p>문득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.</p>  
<p>자세히 보니 거미의 입 주변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.</p>  
<p>'어째서 이 타이밍에 입을 벌리려는 거지?'</p>  
<p>3미터 높이에 있는 거미 머리를 향해 도약하려던 진우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.</p>  
<p>진우는 재빨리 방향을 선회해 위가 아니라 옆으로 몸을 날렸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쏴아아아-!</p>  
<p>거미의 입에서 탁한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.</p>  
<p>바닥을 구르던 진우가 균형을 잡고서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방금까지 서 있던 땅이 연기를 내며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.</p>  
<p>치이이이이이익-</p>  
<p>바닥의 암설들이 흐물흐물 녹아 갔다.</p>  
<p>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'만약 그대로 뛰어올랐다면...'</p>  
<p>녹는 건 암석만이 아니었을 것이다.</p>  
<p>진우의 동요를 느꼈는지 거미가 빠르게 접근했다.</p>  
<p>사사사사삭.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거미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.</p>  
<p>쉬익!</p>  
<p>진우는 제자리에서 점프해 거미 다리를 피했다.</p>  
<p>쾅!</p>  
<p>놈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.</p>  
<p>"젠장!"</p>  
<p>몇 번이나 거미의 머리에 가까이 다가갔지만, 소화액을 피해 다시 뒤로 물러서야 했다.</p>  
<p>거미의 공격 패턴이 두 가지로 늘어나자 상대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졌다.</p>  
<p>다리들을 피해 접근하면 소화액이 쏟아졌다.</p>  
<p>소화액 때문에 멀어지면 다리로 공격해왔다.</p>  
<p>"제길!"</p>  
<p>답답한 마음에 단검으로 다리를 공격해 보기도 했다.</p>  
<p>하지만 두꺼운 표피로 덥힌 다리는 아무리 베어도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.</p>  
<p>'이대론 안 돼.'</p>  
<p>거미는 공격에 앞다리 두 개만 쓰는 반면, 자신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온몸을 쓰고 있었다.</p>  
<p>누가 먼저 지칠지는 뻔했다.</p>  
<p>'피로도.'</p>  
<p>[피로도: 57]</p>  
<p>아니나 다를까, 피로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었다.</p>  
<p>피로도가 70이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, 90을 넘으면 숨이 차서 움직이기 힘들다.</p>  
<p>시간이 촉박했다.</p>  
<p>'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...'</p>  
<p>속도.</p>  
<p>속도가 문제였다.</p>  
<p>쾅! 쾅! 쾅! 쾅!</p>  
<p>'잠깐, 속도라면?'</p>  
<p>쏟아지는 다리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던 진우의 뇌리를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다.</p>  
<p>'그게 있었지!'</p>  
<p>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스킬 하나.</p>  
<p>아직 쓸 일이 없었기에 깜박 잊고 있었다.</p>  
<p>'질주!'</p>  
<p>['스킬: 질주'를 사용합니다.]</p>  
<p>[이동 속도가 30% 증가합니다. 시전 중 1분당 마나가 1씩 감소합니다.]</p>  
<p>메시지와 함께 진우의 몸이 마치 부스터를 단 것처럼 빨라졌다.</p>  
<p>거미 다리를 피하기도 한결 쉬워졌다.</p>  
<p>쉭! 쉭! 쉭!</p>  
<p>쾅! 쾅! 쾅!</p>  
<p>번개처럼 내리찍는 거미 다리 사이를 빠르게 지나쳐 순식간에 거미 앞에 도착했다.</p>  
<p>당황한 거미가 급하게 소화액을 뿌렸다.</p>  
<p>쏴아아아-!</p>  
<p>하지만 속도가 빨라진 만큼 진우의 행동에도 여유가 생겼다.</p>  
<p>소화액을 가볍게 피한 진우가 거미 머리를 향해 뛰어올랐다.</p>  
<p>스걱!</p>  
<p>단검이 거미의 눈을 사선으로 그었다.</p>  
<p>['효과:마비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저항력이 높아 효과가 취소되었습니다.]</p>  
<p>['효과:출혈'이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체력이 1초에 1%씩 소모됩니다.]</p>  
<p>"좋았어!"</p>  
<p>단검 '카사카의 독니'의 특수 효과 출혈이 성공적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"꾸롸롸롹!"</p>  
<p>거미가 괴성을 지르며 비틀거렸다.</p>  
<p>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.</p>  
<p>바닥에 착지하자마자 다시 점프해 거미의 몸을 타고 머리 위로 올라갔다.</p>  
<p>거미가 몸부림치며 다리를 휘둘러댔으나 눈먼 공격에 당할 진우가 아니었다.</p>  
<p>쾅! 쾅! 쾅!</p>  
<p>애꿎은 땅에 구멍만 늘어갔다.</p>  
<p>거미의 머리 위에 올라탄 진우는 단검으로 거미 눈을 연속으로 찍었다.</p>  
<p>푹! 푹! 푹!</p>  
<p>"꾸롸롸롸롹!"</p>  
<p>푹! 푹!</p>  
<p>"끄롸로뢋!"</p>  
<p>거미가 이리저리 발광해 댔지만 진우는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거미의 머리를 쑤셨다.</p>  
<p>"끄루룩!"</p>  
<p>거미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. 데미지는 먹히고 있었다. 진우의 손이 점점 빨라졌다.</p>  
<p>그 커다란 거미의 몸뚱이가 드디어 기울어졌다.</p>  
<p>쿵!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.</p>  
<p>거미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.</p>  
<p>푹! 푹! 푹!</p>  
<p>"크룩, 크르르."</p>  
<p>거미의 단말마와 함께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던전의 주인을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"됐다!"</p>  
<p>거미의 피를 뒤집어쓴 진우가 양손을 번쩍 들었다.</p>  
<p>보스라 그런지 레벨이 세 개나 올랐다.</p>  
<p>"상태창."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21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늑대학살자</p>  
<p>HP: 2600</p>  
<p>MP: 391</p>  
<p>피로도: 0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53 체력: 30 민첩: 38 지능: 30 감각: 32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</p>  
<p>18레벨에서 단숨에 21레벨으로 올라섰다.</p>  
<p>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.</p>  
<p>레벨 업 메시지 말고도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레벨이 20을 초과하였으므로 '상점: 구매' 이용이 가능해집니다.]</p>  
<p>'드디어 골드를 쓸 수 있는 건가?'</p>  
<p>좋은 소식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여기서 한가롭게 상점이나 뒤지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.</p>  
<p>-쿠르릉.</p>  
<p>동굴이 약간 흔들렸다.</p>  
<p>[던전의 주인이 처치되었으므로 1시간 후 던전의 입구가 소멸됩니다.]</p>  
<p>[남은 시간: 59분 58초.]</p>  
<p>게이트가 닫히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.</p>  
<p>상점 구경은 나가서 해도 충분하다.</p>  
<p>바닥으로 내려가던 진우는 거미 머리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다.</p>  
<p>'아이템?'</p>  
<p>하지만 몬스터의 경우와는 달리 아이템 발견 메시지가 뜨거나 자동으로 획득되지는 않았다.</p>  
<p>뭘까?</p>  
<p>잠깐 고민하던 진우가 곧바로 이유를 깨달았다.</p>  
<p>'아, 마정석이 있었지.'</p>  
<p>아무리 바빠도 챙길 건 챙겨야지.</p>  
<p>진우는 거미 머리 안쪽에 숨어 있던 마정석을 뜯어냈다. 보스 머리에서 나온 C등급 마정석이니 천만 원은 족히 되리라.</p>  
<p>멋진 승리의 전리품치곤 부족하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가 거미 머리 위에서 폴짝 뛰어 내렸다.</p>  
<p>척.</p>  
<p>가볍게 착지한 후 돌아섰는데, 이번엔 거미 배 쪽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.</p>  
<p>그것도 여러 개나!</p>  
<p>진우는 의아해했다.</p>  
<p>마수 하나가 가끔 두세 개의 마정석을 준다는 이야기는 들어 봤지만 저 빛들은 마정석이라 하기엔 개수가 너무 많았다.</p>  
<p>'대체 뭐지?'</p>  
<p>단검으로 배를 슥슥 가르고 위장을 찢었더니 녹다 만 벌레 마수들의 찌꺼기가 쏟아졌다.</p>  
<p>빛은 그 벌레들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다.</p>  
<p>"설마?"</p>  
<p>진우는 벌레들을 하나하나 뒤졌다.</p>  
<p>역시나 전부 마정석이 들어 있었다.</p>  
<p>몇 개는 소화되다 말아서 작았으나, 개중에는 아주 멀쩡한 것도 많았다.</p>  
<p>다 합치니 10개가 넘어갔다.</p>  
<p>"대박이네!"</p>  
<p>월세 벌러 왔다가 전세값을 가져가게 생겼다.</p>  
<p>"형님."</p>  
<p>돌아봤더니 유진호가 서 있었다.</p>  
<p>"여기 담으시지요."</p>  
<p>유진호는 자신의 장비 가방에 진우의 마정석들을 차곡차곡 정성스레 담았다.</p>  
<p>그리고 장비 가방 구석에 있던 보온병을 꺼내 안에 든 내용물을 뚜껑에 따랐다.</p>  
<p>"형님, 목마르시죠? 이거 좀 드세요. 물입니다."</p>  
<p>뚜껑 겉면에 물이 맺힐 정도로 차가운 냉수였다.</p>  
<p>'얘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지?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